

햇빛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계절이 왔다. 겨우내 잿빛하늘이 낮게 깔린 우중충한 환경에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밝은 햇살 아래에서 활기를 되찾는 계절이 봄이다. 그러나 이 밝은 봄, 햇빛 강렬한 여름의 5~6개월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햇빛알레르기환자와 피부가 쉽게 그을려 미용을 망치는 사람이 그들이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수많은 자연현상중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안받고 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물질을 먹거나 바른 뒤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많으며 이때 광(光)과민 현상(햇빛알레르기)이나 광독성(光毒性) 피부염이 생겨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광독성피부염은 일광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먹거나 접촉되었을 때 금방 피부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관찰되는 일광화상과 증상이 유사하다.

광독성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햇빛만 쬐었다 하면 피부가 쉽게 탄다고 불평하는 여성은 한번쯤 광독성 체질자라고 의심해 보아야 하며 일광에 노출된 부위에 엄격하게 국한되어서 나타난다.

반면 광알레르기환자는 광알레르기가 발생할 소지를 갖추고 일광에 노출되어도 피부의 감각(感作)이 일어날 때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습진양상을 띠는 피부병이 발생, 환자를 헛갈리게 만든다.

일광알레르기증상은 또한 낮은 농도의 광과민물질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노출부위 외에 엉뚱한 부위에까지 습진성 병변이 나타난다.

일광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수히 많다. 광독성물질로는 곰팡이에 의한 피

부병 치료제로 먹는 그리세오폴빈, 설파제 등이 있고 광알레르기물질은 혈압강하제, 살리실산, 설파제 등이 있다.

햇빛이 원인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다형광진(多形光疹)도 그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햇빛에 노출된 수시간 후 얼굴과 목, 손과 발의 배후에 구진, 물집, 이들이 군집을 이루는 팽진 등 습진성 병변이 나타나며 자외선이 강한 봄과 여름에 잘 발생되고 광독성을 띠게 된다.

처음에는 왜 이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고 약국에 가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서 발라 편함을 꾀한다.

원인이 햇빛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질병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원인인 줄은 더욱 알 수 없으므로 햇빛에 노출되면 같은 증상이 되풀이 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한여름 낚시를 갔다가 그날 밤 등이나 얼굴에 작은 구진이 나타나 가려워 약을 사 바른뒤 좀 편안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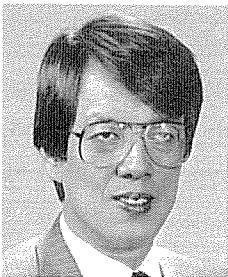
그 뒤 또 낚시를 가고 같은 증상이 되풀이 되어도 그 흔한 햇빛이 원인인 줄 모르고 같은 약을 발라보다 잘 낫지 않아 애먹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내과와 피부과 의사의 협조로 약을 바꾸든지 가능하면 햇빛을 피하는 등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질환에 일단 걸리면 생활의 제약이 심하다. 우선 가장 큰 원인물질인 햇빛을 피해야 하고 또 먹는 약을 바꾸든가 남자라도 일광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염증이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바로 전신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엉뚱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몰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⑤7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